

# 민주 “새만금 예산 삭감 잼버리 화풀이… 정상화를”

### 새만금 예산 정상화 전북인 총궐기대회 참석 “잼버리 파행에 정치 보복… 예산안 끝까지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삭감된 새만금 사업 예산을 정상화 시키겠다고 7일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에서 “새만금 예산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80%를 깎았던 건 사업하지 말란 것이다. 그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새만금 관련해서 유일하게 보도된 건 잼버리 사태였다. 잼버리 사태와 새만금 사업 모두

관련이 있는”고 반문했다.

이어 “전북도에게 모든 권한을 넘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권한도 안 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제와 책임을 떠넘기고 화풀이 한다고 예산 80%를 깎았다. 화를 낼 때도 정도껏 해야지 이런 싸우자는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경고한다. 전북도민과 민주당과 싸우겠다는 건지 새만금 예산을 보고 판단하겠다”이며 “새만금 예산 정상화될 때까지 민주당은 예산과의 싸움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저는 이번 예산 삭감 사태를 성장통이라고 표현한다”며 “전북을 위한 새만금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 담대하게 이성장통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병도 의원은 “정부에서 5월과 6월에 새만금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갑자기 잼버리 파행 후에 예산을 다 삭감했다”며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치 보복이란 증거가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운덕 의원은 “이번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예산 보복이자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영대 의원은 “우리 김 지사께서 시도지사협의회에 가서 새만금 예산 복원이 꼭 필요하다고 대통령께 간곡히 말씀드렸다고 한다. 대통령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비서실도 긍정적으로 국회가 합의하면 하겠다고 했다”며 “예산 통과까지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전북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김관영 전북도지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운덕·김성주·김수홍·한병도·신영대·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새만금 비상회의 제공)

## 도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 오늘 개회

### 내달 13일까지 '제2차 정례회'… 행감·내년 예산안 심사 등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8일 '제405회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38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먼저, 8일 오후 2시에는 개회사에 이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실시 후,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포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 등에 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촉구할 계획이다.

9일부터 1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오는 9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는데, 피감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도민의 권익 구제에 앞장서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 24건의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을 접수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도민 제안을 검토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21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사업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일은 없는지 꼼꼼히 따지고, 현장 감사를 병행해 지역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고, 간혹 재정안 예산이지만 민생은 살피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관련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검토·분석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업무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민간의 준비를 해왔다. /김재훈 기자

## “새만금 예산 복원… 사업 정상화하라”

### 마라톤 투쟁 도의원의 전북인 총궐기 합류

### 국회 본예산 확정때까지 새만금 사업 정상화 투쟁



마라톤 투쟁에 나선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 정상화 전북인 총궐기대회에 합류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촉구한다”, “새만금은 죄가 없다. SOC 예산 살려내라.”

새만금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북도민들의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울려 퍼졌다.

전북도의회와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인천 전북도민 총연합회, 재정전북인 14개 시·군비상회의 등 5천여 명은 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오광근 전 도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국주영은 의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대화사 및 격려사, 전북도의회 마라톤 투쟁단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에서 준비한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인 새만금 사업이 멈추어 설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6,628억원의 새만금 예산 중 5,417억 원을 잘라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매년 평균 6,000억원 인파이 지원되던 예산이 1,479억원으로 줄어 삭감률이 무려 78%”라며 “새만

금에 사전타당성과 예비타당성 등 법과 절차를 밟아 34년간 추진돼 온 계속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은 부지가 부족한 정도로 기업수요가 많고,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산업과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됨으로써 SOC 확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때에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은 정당성도 현실성도 없다”면서 “전북을 앞잡아 보고 무자비하게 칼질을 해낸 행태를 규탄하며 국회 예결위에서 새만금 예산이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주에서 국회까지 마라톤 투쟁으로 궐기대회 현장에 도착한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예산을 삭감한 것은 모든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우기 위한 보복성 예산”이라며 “새만금 사업 정

상을 위해 삭감한 예산을 복원하고 현 정부 임기 내 새만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9월 5일 도의회 앞에서 삭발식을 단행한 뒤 70일 가까이 릴레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2차 삭발식 및 피켓시위를 벌였다.

또한 지난달 28일부터 전북도의회에서 출발해 이날 국회 앞까지 13일간 박정규 의원을 중심으로 릴레이 마라톤 투쟁에 나섰으며, 앞으로 국회 본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릴레이 단식과 국회 예결위 면담 등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남원시의회,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 호소

### 박희승 민주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과 국회 방문 민주 홍익표 원내대표·고영인 의원 등에 지원 요청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강인식 위원장) 이기열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과 지난 6일 국회를 방문, 의대 정원 확대와는 관계없이 기존의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국립의전원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남원 시민의 염원인 남원 국립의전원전문대학원 설립 법률안 통과 및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 남원

의 상황을 알리고 정부의 당초 공공의대 추진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기 위함이다.

이날 면담자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신동근 보건복지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 의장과 고영인·박주민 국회의원을 만나 남원 국립의전원의 설립 타당성을 설명하고, 특히 국립의전원 법률안 발의자인 김성주 의원에게 국립의전원 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남원시의회는 5년째 답보상태



인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수차례 국회의원 면담과 결의안을 채택해 송부했으며, 특히 지난 10월 남원 시민들과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여는 등 각종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추진주매일 창간

# 전주비전대학교 취업률

# 1위

졸업생 1,000명 이상  
전문대학 기준

# 81.1%

2021년 교육부 발표 (2020.12.31. 기준)

## 2024학년도 모집일정

수시1차 : 2023.09.11(월) ~ 10.05(목)  
수시2차 : 2023.11.10(금) ~ 11.24(금)  
정시 : 2024.01.03(수) ~ 2024.01.15(월)